

서울시 일부 HIV/AIDS 감염자 요구조사 결과

이 영 속 / 협회 국제협력위원회 간사

들어가는 말

본 연구는 HIV/AIDS 감염자들의 의료적, 심리적 요구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감염자 복지 및 의료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를 제공하고 감염자들이 적절하게 질병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조사 기간은 1998년 5월이며 연구대상자는 서울시 6개 보건소에 등록된 감염자 44명이었다. 연구방법

은 연구자가 작성한 설문지를 대상자가 자가기입하거나 보건소에이즈담당자가 면접형식으로 대리작성한 자료에 대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에 발표한 내용은 지면의 제한으로 인하여

〈표 1〉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성별	명(%)	44(100%)	
남	38(86.4)		
여	6(13.6)		
연령		결혼상태	
25-30	10(26.3)	미혼	28(63.6)
31-35	13(32.2)	기혼	11(25.0)
36-40	9(23.7)	절거	0(0.0)
41-45	4(10.5)	이혼	4(9.1)
46+	2(5.3)	사별	1(2.3)
평균 ± 표준편차 = 36 ± 7.53	min = 25, max = 61		
교육수준		경제수준	
국졸	2(4.5)	아주 잘 산다	2(4.5)
중퇴 및 중졸	9(20.5)	잘 사는 편이다	3(6.8)
고졸도 및 고졸	8(40.9)	보통이다	18(40.9)
다재 및 대졸	8(18.2)	약간 찜찜하다	10(22.7)
대학원 이상	7(15.9)	매우 찜찜하다	11(25.0)
감염경로	명(%)	감염연노(감염기간/년)	명(%)
이성애	24(54.5)	'89-' 90(8)	2(4.5)
동성애	15(34.1)	'90-' 93(5)	12(27.3)
수혈	2(4.5)	'94-' 95(4)	14(31.8)
기타	3(6.8)	'96(3)	16(36.4)
		평균감염기간 = 4	S.D = 2.08

내용을 축소한 것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남자가 86.4%, 여자가 13.6%로서 남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연령은 평균 35세였으며 교육수준은 고졸 40.9%, 대졸 34.1%로 높은 편이었다. 경제수준은 약간 쪼들린다 22.7%, 매우 쪼들린다 25.1%로서 47.7%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성애 54.5%, 동성애 34.1%, 수혈 4.5%, 기타 6.8%로 이성애가 주요 감염경로이었으며

감염기간은 평균 4년이었다.

대상자의 건강상태는 아주 좋은 편이다 22.7%, 좋은 편이다 31.8%로 전체적으로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과거에 비해 에이즈약의 발달, 대체요법의 사용으로 건강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되며 주요 증상은 “항상 피곤하다” 70.0%로 가장 많았으며 특별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없었다.

마음상태에 관해서는 “감염사실을 수용하고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가 40.9%로서 감염사실의 수용이전의 충격단계에서 벗어나 수용과 적응노력의 단계에서 같동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

한 적절한 정신적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에 에이즈가 복합요법의 발견으로 치명적 질병에서 만성질환으로 변하면서 이러한 변화로 인해 에이즈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이 변화되었다 라고 응답한 감염자가 45.5%로 나타났다. 스스로 에이즈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건강상태와 건강회복노력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기타 연구결과 참고)

사회생활의 어려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신분출세의 염려가 82%로 가장 많았고 실적으로 인한 어려움이 47.8%로 그 다음이었다. 가족과의 거리감 54.5%, 주위로부터의 거리감 56.8%로 비슷하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감염자의 비율은 전체 50%에 달하며 이들은 단순한 재정지원보다는(53), 소득증대사업이나(59) 직장일선이나 직업교육을 원하는 것으로(107) 나타났다.

원하는 일반서비스에 관해서는, 치료비선불제도개선(86)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에이즈약 저가구매(55)로서 의료적 요구가 가장 강하였다.

에이즈교육가로 교육받아 활동할 의사가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아니오’가 72%로서 압도적으로 많았고 감염사실을 누구에게 알렸는가 47.4%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였다.

공개운영여부에 관해서는 비공개운영을 81.8%가 찬성하였고

〈표 2〉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증상

증상	명(%)	누적 명수(%)	증상	명(%)	누적명수(%)
아주 좋은편이다	10(22.7)	10(22.7)	항상 피곤하다	14(70.0)	14(70.0)
좋은 편이다	14(31.8)	24(54.5)	식욕이 없다	2(10.0)	16(80.0)
그저 그렇다	9(20.5)	33(75.0)	물면승이 시달린다	2(10.0)	18(90.0)
나쁜 편이나	11(25.0)	44(100.0)	기타	2(10.0)	20(100.0)
아주 나쁘다	0(0.0)	44(100.0)	무응답	24(54.5)	

〈표 3〉 마음상태와 에이즈에 대한 인식변화

에이즈에 대한 인식변화	명(%)	누적명수(%)
변화되었다	20(45.5)	20(45.5)
이전과 동일하다	24(54.5)	44(100.0)
총계	44(100.0)	44(100.0)
마음상태	명(%)	누적명수(%)
감염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6(13.6)	6(13.6)
마음이 안정되지않고 망황	8(18.2)	14(31.8)
감염사실의 수용과 적응노력	18(40.9)	32(72.7)
감염사실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고 있다	11(25.0)	43(97.7)
기타	1(2.3)	44(100.0)

운영주체는 민간단체가 43.2%로 가장 많았다. 원하는 인력에 관해서는 전문상담인이 50.0%로 가장 많았다.

컴퓨터에서 제공되기를 원하는 서비스에 관해서는, 건강 및 영양 교육이 1순위였고(61) 감염자들의 자책활동지원이 그 다음이었

으며(56) 이는 감염자들이 자신의 질병과 건강회복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그 어떤 요구나 관심사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컴퓨터에서 원하는 시설로는 모임장소를 가장 원하였으나(97) 운동기구에 관한 요구도 높게 나타났다으며(75) 노래방같은 기구나

간이침대와 같은 시설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33)

기타 연구결과

대상자의 일반특성과 건강상태, 마음상태, 에이즈에 대한 인식변화, 사회적 어려움등의 기타 변수와의 상관분석 및 χ^2 분석의 중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에이즈에 대해 희망적으로 새롭게 인식하고 있을수록($p<0.01$, $\chi^2=7.242$), 감염기간이 짧을수록($p<0.01$, $\chi^2=6.51$)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에이즈에 대해 올바르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감염자들의 건강상태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동성애로 인해 감염된 사람에 비해 이성애로 인해 감염된 사람이 더 마음상태가 안정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chi^2=3.928$)

에이즈에 대한 인식은 연령이 적을수록($p<0.05$)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수록($p<0.05$)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복합요법의 비용이 고가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인한 어려움은 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감염기간이 길수록 감염사실을 알린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오래될수록 비밀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

〈표 4〉 사회생활의 어려움 단위명(%)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실직으로 인한 어려움	16(36.4)	5(11.4)	2(4.5)	13(29.5)	2(4.5)
가족과의 거리감	7(15.9)	17(38.6)	9(20.5)	5(11.4)	0(0.0)
주위로부터의 고립감	7(15.9)	18(40.9)	7(15.9)	8(18.2)	0(0.0)
신분노출의 염려	23(65.9)	7(15.9)	1(2.3)	3(6.8)	0(0.0)

〈표 5〉 희망하는 경제적 지원서비스 단위명(%)

	1순위	2순위	3순위	가중치	순위
새로운 직장알선	25(56.8)	9(20.5)	5(11.4)	107	1
소득증대사업	1(2.3)	23(52.3)	10(22.7)	59	2
단순한 재정지원	9(20.5)	4(9.1)	18(40.9)	53	3
보건증 발급제한 최소화	7(15.9)	7(15.9)	4(9.1)	39	4

〈표 6〉 원하는 일반서비스 단위명(%)

	1순위	2순위	3순위	가중치	순위
의료비선불제도개선	21(47.7)	10(22.7)	3(6.8)	86	1
에이즈약 저가구매	6(13.6)	14(31.8)	9(20.5)	55	2
전문상담인	9(20.5)	10(22.7)	3(6.8)	50	3
요양소	3(6.8)	4(9.1)	5(11.4)	46	4
호스피스	2(4.5)	4(9.1)	17(38.6)	31	5
임시숙소	2(4.5)	1(2.3)	5(11.4)	13	6

〈표 7〉 에이즈교육가활동의사여부 단위명(%)

에이즈교육가활동의사여부							
예		11(25.0)		총계:44(100.0)			
아니오		33(75.0)					
감염사실의 알림	부모	형제	친구	배우자	친척	알리지않음	총계
	4(9.1)	6(13.6)	6(13.6)	7(15.9)	0(0.0)	21(47.4)	44(100.0)

으로 추측된다.

이성애로 감염된 사람이 동성애로 감염된 사람보다 더 주위로 부터 고립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통상 에이즈가 동성애자들의 질병으로 알려져 있어 이성애로 감염된 사람들이 더 심리적 갈등을 느끼는 것으로 추측된다. 감염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람이 알린 사람에 비해 더 가족과의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기타 상관분석의 결과에 의하

면 건강상태는 신분노출의 염려 여부($r^2=0.20500$, $p=0.0033$), 연령($r^2=0.20500$, $p=0.0820$), 경제수준($r^2=0.28694$, $p=0.0045$)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음상태는 가족과의 거리감($r^2=0.23428$, $p=0.0457$), 경제수준($r^2=-0.35838$, $p=0.0054$)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였다.

제 언

■정부의 보건소를 통한 감염

〈표 8〉 컴퓨터의 공개운영여부, 운영주체, 인력

단위:명(%)

공개운영여부	공개적 운영		비공개적 운영		총계
	8(18.2)	36(81.8)			
운영주체	자체운영	종교단체	민간단체	정부운영	총계
	7(15.9)	14(31.8)	19(43.2)	3(6.8)	
필요한 인력	간호사	사회복지사	전문상담인	종교인간호사	총계
	3(6.8)	2(4.5)	22(50.0)	17(38.6)	

〈표 9〉 컴퓨터에서 원하는 서비스

단위:명(%)

	1순위	2순위	3순위	가중치	순위
건강 및 영양교육	11(25.0)	7(15.9)	14(231.8)	61	1
감염자들의 자체활동지원	9(20.5)	13(29.5)	3(6.8)	56	2
전문상담서비스	7(15.9)	14(31.8)	6(13.6)	56	3
에이즈에 관한 정보	8(18.2)	5(11.4)	11(25.0)	45	4
숙식제공	6(13.6)	2(4.5)	3(6.8)	25	5
대화외 협력의 장소	2(4.5)	2(4.5)	5(13.6)	16	6

〈표 10〉 컴퓨터에서 원하는 시설

단위:명(%)

	1순위	2순위	3순위	가중치	순위
모임장소	26(59.1)	7(15.9)	5(11.4)	97	1
운동기구	7(15.9)	25(56.8)	4(9.1)	75	2
노래방기구	3(6.8)	1(2.3)	22(50.0)	33	3
간이침대	4(9.1)	6(13.6)	8(18.2)	32	4

자 관리방식은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관리이므로 감염자 위주의 관리정책으로 개선이 요구되며 비밀보장이 중시되어야 하는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담당자가 자주 바뀌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가능하다면 면역검사를 무조건 받도록 하지 말고 감염자의 자율에 맡기고 치료비후불제도를 선불제도로 전환하는 등 감염자 위주의 정책이 배려되어야 한다.

■감염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의료정보 및 심리적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이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적 요인은 항상 건강상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복지적 차원 뿐 아니라 의료적 차원에서도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경제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가족들에게도 감염사실을 말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발병시 호스피스케어, 요양소등 포괄적인 의료체계를 통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감사의 글

본 조사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주신 서울시 의약과 김용재 계장님, 강남구보건소 최명조 선생님, 마포구보건소 임춘수계장님, 에이즈연맹 권관우 사무총장님, 기타 설문에 응해주신 감염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A**